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³⁹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⁴⁰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⁴¹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⁴²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⁴³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어져 된 일인가 ⁴⁴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⁴⁵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눅1:39-45)

오늘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아이를 잉태했다고 말합니

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역시 아이를 가지기에는 너무 늙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천사는 그들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루시지 못 할 일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자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아마 엘리사벳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으로 표상(表象)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속뜻으로 어떤 사람들을 나타낼까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모두 천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적(天的, *celestial*)이다, 영적이다, 자연적이다라는 말은 새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듣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사랑의 등차(等次, 등급, 단계, *degree*)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적이란 주님 또는 선(善, *good*)을 사랑하는 등차이구요, 영적이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는 진리를 사랑하는 등차를 말합니다. 또 자연적이라는 말은 세상의 법도나 학문 같은 것, 그 밖의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는 등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천적 선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이렇게 천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그들을 친척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그들은 실제로도 친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특별히 그들을 친척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친척이라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구요, 그들에게 있는 선의 특성이 이와 같이 서로 비슷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서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엘리사벳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요, 마리아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마리아로 표현되는 이방인은 단순히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아니구요,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 교리와 타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리아와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거나, 말로는 삼위일체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세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새 교회를 세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것은 잘못된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기존의 낡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선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존의 말씀을 가지고는 왜 안 될까요? 기존의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왜곡해서 모두 거짓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대교회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소위 장로의 전통이라는 계율을 만들어 낸 것처럼, 그렇게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선 선하게 살아라.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회에서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엘리사벳과 사가랴 같은 사람, 즉 기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란 유대교회 말기에는 신약의 말씀이구요, 오늘날의 교회 상황에서는 주님의 종 스베덴보리를 통해 밝히신 말씀의 내적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에게 주시는 아기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의 종말, 즉 교회의 마지막 때에 인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낡은 교회를 폐하시고 그 대신 세워질 새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엘리사벳이 잉태한 아이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누구일까요? 마리아의 아이는 새로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내적 진리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말씀이 없는 곳에는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요한으로 표상되는 말씀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주님께서 지상에 세우시는 새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마리아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게 엘리사벳의 수태를 알린 것(受胎告知, *Annunciation*)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사는 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수태를 알렸을까요? 마리아로 상징되는 새 교회의 사람들을 새로운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진리를 처음 접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죠. 어떤 분은 책을 통해서, 어떤 분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새 진리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엘리사벳의 수태를 알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인도를 통해 마리아는 이제 서둘러 엘리사벳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본문 3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움직였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그런 모습은

선한 이방인이 참된 진리를 갈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먼저 산골로 갔습니다. 산골은 영어로는 *hill country*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옮기면 작은 산이 있는 시골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작은 산은 무슨 뜻일까요? 큰 산이 주님께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면 작은 산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골 마을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산골로 가는 것은 기존 교회 안에 이웃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는 그들에게 갔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려 줘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교회에 다녔다가 그곳에서 가르치는 진리에 회의를 느껴 교회에서 멀어진 분들에게 주어집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니다. 주님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마리아가 그들에게 달려가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침내 유대의 어느 동네에 당도했다고 합니다. 유대는 천적인 것을 뜻하고, 동네는 교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동네란 천적인 교리를 말합니다. 천적 교리는 그 교리의 바탕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 새로운 말씀을 알게 되고, 다시 그것을 통해 가장 깊고 순수한 교리를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유대의 동네에 당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면서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⁴⁰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인사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의무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웃의 집을 방문할 때는 인사하라, 평화를 빌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는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인사를 받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¹²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¹³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마10:12-13)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한 인사는 마리아에게 있는 주님의 평화가 엘리사벳과 그 아기에게 전해지는 것이구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았을 때 복중에서 아이가 뛰었습니다.

⁴¹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중의 아이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주님의 말씀을 듣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고 뛰었다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이 당신의 교회인 마리아와 하나가 되고자 하시는 열정을 나타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주님이 세우실 새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주님께서 당신의 새 교회에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새로운 말씀을 통해 주님은 내적 진리로 당신의 교회에 오시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존의 교회에는 주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구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말씀으로 다시 오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42절에서는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42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엘리사벳이 축복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마리아를 축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말했다고 했는데, 그것 역시 주님의 거룩한 열성을 나타냅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과 앞서 아기가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는 것은 서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둘다 주님의 거룩한 열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기가 복중에 뛰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이 당신의 교회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성이구요,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마리아를 축복한 것은 주님의 열성이 당신의 교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축복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6절에 여호와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하시고 (창3:16)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와를 저주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간을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인간들이 감당해야 할 숙명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자란 인간의 자아 위에 세워진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교회는 인간의 자아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임신하는 고통과 자식을 낳는 수고는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진정한 진리를 얻기까지 견디고 이겨야 할 내적 싸움과 온갖 걱정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아기를 낳는 수고와 임신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진정한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거기서는 진정한 진리를 만나로 표현합니다. 만나는 책에서 배우거나 설교를 통해 듣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내

적 진리로 오시는 주님이 바로 진정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는 선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진리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타고난 자아를 부단히 깎아내고 깎아내고, 잘라내고 잘라내는 그런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부단(不斷)한 내적 싸움과 인고(忍苦)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하와에게 징계처럼 내리신 이 말씀은 교회의 험난한 역사를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은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까지 교회가 겪었던 모든 싸움과 수고의 결실을 이제 맺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교회의 넘어짐과 일어섬의 반복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이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그 모든 교회의 흥망성쇠의 결실을 너를 통해 맺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마리아로 상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징되는 교회는 주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회이구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에 내적 진리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바로 이어서 “**네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세우시는 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태중의 아이는 그 교회에 내적 진리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43절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또 말했습니다.

43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 역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은, 참된 말씀을 아는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낡고 병든 교회를 떠나는 것이구요. 그러므로 내적 진리가 있

는 새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사벳의 입장에서 본 마리아와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의 의미를 우리들의 얕은 믿음으로 어떻게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새 교회 가르침에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글자로 된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것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엘리사벳이 잉태한 아기, 즉 새로운 말씀이 마리아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당신의 새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물론 그들에게도 진리를 주십니다. 어떤 식으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주실까요?. 다양한 종교의 교리나 세상의 상식들을 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진리들은 진정한 진리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도 선하게 살면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을 통해 이웃들에게 주님의 진리를 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인류를 모두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런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선을 그 자체로 사랑하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적 의미로 보면 이방인이었습니다. 물론 말씀의 글자의 뜻으로 보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내적 의미로 보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엘리사벳에게

로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받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 엘리사벳과의 만남입니다.

반면에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는 참된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여전히 기존의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기존 교회에 머무는 것은 기존의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진리 전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진리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참된 진리와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진리를 함께 섞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진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진리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것이, 말하자면 기존의 교회에 아직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엘리사벳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만나는 것은, 낡은 교회를 떠나 순수한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며, 또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주님의 권고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새 교회가

눅1:39-45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나에게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⁴⁵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은 주님이 세우신 새 교회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새 진리를 받았으면서도 진리에 따라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는 많습니다. 아직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진리를 위해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오로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새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 교회는 에덴동산 이래 인류가 감당했던 모든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내적 진리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인도된 모든 교우님들께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함

니다.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사2:2)

아멘.

2016-05-22(D1)

이순철 목사